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

## 2023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

독일, 체코



전 주 시 의 회  
복지환경위원회

# 목 차

I. 출 장 개 요 .....	1
II. 심사근거 및 절차 .....	2
III. 배경 및 목적 .....	3
IV. 기 대 효 과 .....	13
V 국가소개 .....	15
VI. 출 장 일 정 .....	18

# 2023 공무국외출장 추진계획

## 『독일, 체코』

### I 출장 개요

- 기 간 : 2023. 7. 10.(월) ~ 7. 18.(화) (7박9일)
- 국 가 : 독일, 체코
- 분 야 : 아동·장애인·노인 돌봄서비스
  - 유럽의 아동·장애인·노인돌봄 정책 사례를 통한 효과적인 맞춤형 돌봄복지 방안 연구
- 인 원 : 18명(의원 5, 의회사무국 직원 2, 집행부 9, 민간단체 2)
- 소요경비 : 5,200,000원/1인(자부담 1,700,000원)
  - ▶ 국외여비 지급항목 : 항공운임 2,300,000원
  - ▶ 지급기준(일비 · 식비 · 숙박비) [단위: 1인/USD 1330.00원 / '23. 5. 30.기준]

구분	총계		일비			식비			숙박비		
	\$	원	일수	\$	계	일수	\$	계	일수	\$	계
의원	1,760	2,330,240	9	30	270	9	59	531	7	137	959
직원	1,760	2,330,240	9	30	270	9	59	531	7	137	959

※ 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 여비규정

- 연수비용(예산범위 내 지급)
  - ▶ 의원 : 3,500,000원 × 5명 = 17,5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활동지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의회비(의원국외여비)
- 연수방법 : 공개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 연수방법

- ▶ 용역 수행업체 선정 : 공개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 역할 : 항공 및 호텔 예약, 현지교통, 보험가입, 안내 등 전반
- ▶ 방문기관 선정 : 연수 참여의원 선정(간담회) ⇨ 현지 코디안내
  - 의회사무국 : 방문장소 및 주요 벤치마킹 사항 등 공문시행
  - 용역업체 : 기관방문 사전협의, 출장일정 조율, 방문대상지 및 사전질문지 전달, 현지 전문 코디 활용 진행 등

## II 심사근거 및 절차

□ 심사근거

-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회규칙 제36호, 2019. 3. 28.)

□ 추진계획

- 공무국외출장 심사 : 6. 7.(수)
- 용역업체 모집공고 : 6. 7.(수) ~ 6. 19.(월) / 12일간
- 제안신청서 접수 : 6. 8.(목) ~ 6. 19.(월) / 11일간
- 평가위원회 위원구성 : 6. 16.(금)까지
- 1차 서류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 6. 20.(화)
- 2차 제안설명회 : 6. 21.(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6. 22.(목)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 6. 23.(금)
- 의원 공무국외출장 : 7. 10.(월) ~ 7. 18.(화) / 비회기중

### III 배경 및 목적

#### □ 출장배경

- 전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8,520명(통계청 '23.4월말 기준)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16.8%로 전체 인구의 14%가 넘어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수는 10,903명으로 노인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치매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더불어 전주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요양, 건강보장, 치매정책 등 노인건강과 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주시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선도사업의 종료로 전주시에서는 올해부터 4.5억여원을 들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주시의 실정에 맞는 전주형 노인돌봄사업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음  
또,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및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등 치매환자의 예방과 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매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이에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별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관련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 돌봄시스템과 제도를 먼저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 노인돌봄 사례의 현장을 견학하고 직접 체험하여 관련 사례를 연구하며, 전주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노인돌봄서비스의 방향을 탐색하고 도입 가능한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아동,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과 장애인 포용정책을 위한 세미나를 2차례('22.11월, '23.4월) 개최하며, 세미나의 초청토론자로 관련 정책의 선진국인 독일 관계자를 초청하여 독일의 정책과 사례를 듣고 토론하며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바 있음  
이를 계기로 당시 참여한 독일 뷔르템베르크 디아코니아 사회 복지재단의 초청을 받아, 이들이 독일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돌봄 시설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독일의 복지정책 사례를 수집하고 대표 및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우수 사례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복지시책을 교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또, 전주시는 지난 2016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았고,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전담부서도 신설하여 아동 친화 정책을 펼쳐 2022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는 등 지속적인 아동친화적인 시책을 수행하고 있음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아동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5월중에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준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과 함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아동복지 분야의 복지정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이에 발맞춰 오랜기간 동안 아동복지 정책을 펼쳐온 독일의 사례를 확인하고 독일의 아동복지 접근에 대한 관점과 방식, 사회구성원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례들을 견학하며,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나은 아동복지 시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 □ 출장목적(방문시설)

### 프랑크푸르트 고아원재단(Stiftung Waisenhaus)

-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 있는 고아원재단은 1679년에 설립되어 320년 넘게 운영되고 있고, 현재 암마인에서 가장 큰 독립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중 하나로 134명의 직원이 근무중임  
어린이 청소년 치료전문센터를 두고 아동청소년 심리치료를 지원, 사회진출을 위한 작업/기술교육, 편부모를 위한 육아교육 지원,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지원 사업으로는 13세대의 모자가정 주거시설, 아동청소년 주거 및 보육그룹홈 6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그 밖에 과외와 학습을 위한 교육개발 지원사업, 방학지원금/수학 여행지원금, 크리스마스 기부지원금, 일회성 보조도구 지원 등 650여명에게 현금성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해당 재단의 주거돌봄시설 전경>

-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종료 아동의 돌봄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었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23년 5월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공포하였음  
보호종료가 되는 연령이 되었더라도 그 보호기간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정부에서도 2021년 보호  
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호종료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 등 돌봄정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전주시에서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생계급여, 아동보호전담  
요원 배치, 전문가정위탁 지원, 그룹홈 운영지원, 자립정착금지원  
등 약 12개 사업 577억원의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작년부터  
직제개편을 통해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복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있음
  
- 유럽의 최대 복지국가인 독일의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보호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하도록 돕는 자립 및  
교육프로그램과 정서·심리치료·주거지원 사업을 확인해보고,  
우리와 차별적인 지원사업이 무엇이고 어떠한 프로세스와 접근  
방식으로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학습하여, 우리에게 필  
요한 아동돌봄 시책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뷔르템베르크 디아코니아(Diakonisches Werk Württemberg)

- 독일 디아코니아(Diakonie)는 기독교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웃에게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독일 개신교 복지협회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 전역의 디아코니아에는 약 60만명의 정규직 및 시간제 직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약 5,000개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음
- 뷔르템베르크의 디아코니아는 1823년 슈트트가르트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을 겪는 고아를 위한 구조센터를 설립으로 시작 되었으며, 1,400여개의 산하 복지기관을 두고 5만명 이상의 직원과 35,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27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뷔르템베르크 디아코니아의 복지 서비스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실업자, 노숙자, 경제적 빈곤층, 중독자, 이민자, 난민 등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으며, 이들 디아코니아는 교회세, 정부(연방,주,지자체)의 보조금, 보험료(건강, 장기요양 및 실업보험), 기부금을 받아 운영 중임

## 에슬링겐암네케어의 노인 간호시설(Dienste für Menschen gGmbH)

- 디아코니아의 소속 노인케어 제공업체로 약 2천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요양원, 데이케어, 10개소의 외래환자간호서비스 및 돌봄주택을 운영 중임. 현재 26개 요양원에서 1,700여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고 5개 지역에 약 280여 채의 주거용 아파트 생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하일브론 아동청소년 시설(diakonische jugendhilfe heilbronn)

-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소속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로 하일브론 지역의 75개 이상에 시설을 두고 있으며 6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500여명 이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시설의 수혜를 받고 있음. 한부모가정 주택제공, 외래환자 상담 치료사업, 특수 교육 및 상담, 직업전문학교 운영, 공립학교 종일 돌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지역아동·청소년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및 「2023년 5월 장애인 권리 선언과 포용적 실천방안(독일 디아코니아 관점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2차례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2차례 모두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제하여 우리시에 맞는 아동,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련 정책의 전환과 과제와 함께 포용적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고 논의하고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때 토론자로 초청한 뷔르템베르크 디아코니아 공동의장(Robert Bachert)의 제안으로 독일 슈투트가르트 뷔르템베르크 디아코니아 기관에 초청을 받아 이들이 운영하여 아동, 청소년, 노인 돌봄 현장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2차례의 학술 세미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역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디아코니아 관점에서의 장애인, 노인 복지정책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시의회, 담당 주무과(아동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치매안심과)와 일선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민-관-의회의 다양한

눈높이와 관점에서 디아코니아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을 견학하며 디아코니아의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함

- 한편, 독일의 중증 장애인은 2011년 기준 730만명 정도로 전체 장애인의 50%, 독일 인구의 9.1%이며,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345만명으로 인구의 7.6%인 것에 비해 독일의 중증 장애인 비율이 높음
  - 전주시 장애인 인구는 '23.3월 기준 3.4만명으로 전주시 전체 인구의 5.2%이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장애인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일자리, 교육, 문화예술,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지자체 최초로 발달장애인 사서보조 및 수어통역사를 채용하였고, 2022년에 발달장애인 앙상블연주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여 우수일자리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바리스타)하고, 공공기관 내 카페설치사업,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임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 학습권의 기회도 만들었으며, 장애인체육센터와 장애인 복지회관을 결합한 통합형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 친화 음식점 86개소를 선정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 셔틀버스 운행사업을 시행하고, 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무장애길 설치 구간도 확장하고 있음
-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탈시설화)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3년간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과 입소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 자립 가정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자립지원 운영 모델을 만들고자 하고 있음

그 밖에 장애인 청년 융합형 자립지원주택 27호 확보, 권역재활 병원 건립,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이처럼 전주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2023.3월 전장연 지하철 출근길 기습시위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서 보듯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온전히 더불어 살아가기에는 아직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미흡하고 시민들의 장애인 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 디아코니아의 관점에서 본 독일식 장애인 포용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독일 시민들의 장애인 포용 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과 더불어 장애인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과 탈시설 지원사업의 수행방식을 학습하여 우리시에 도입가능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함

## 프라하 호도프 요양원(Home for the Elder Chodov)

○ 프라하 호도프에 있는 요양원(Home for the Elder Chodov)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거나, 정신질환 환자 등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1990년부터 시설을 운영되고 있으며 4개동으로 구성된 복합 건물로 총 260석의 병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50여명(남성 54, 여성 196)의 이용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설에 종사하는 인원은 162명(여성 145, 남성 17)임

사회복지사들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간호사도 상주하며 물리적 치료 등 의료지원, 언어/심리치료 지원, 사회적 유대지원, 문화예술 프로그램지원 등 수혜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해당 요양원 시설 모습>



<수혜자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 모습>

- 전주시는 치매안심과를 두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주시립요양병원(188병상)을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 계획 중이며, 치매환자 쉼터운영, 각종 치유프로그램과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음  
치매환자 예방사업으로 각 동 복지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인지 선별검사와 치매 조기검진사업,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평화동, 진북동 등 치매안심마을을 2개소로 지정하여 지역치매 친화분위기 조성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음  
또한, 공립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설치를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여 치매 어르신에 대한 돌봄역량 강화와 시설 확충을 계획 중임
- 알츠하이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프라하의 노인요양, 예방사업, 사후관리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는 AI기기를 활용한 치매돌봄 및 예방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함  
특히, 프라하시의 치매돌봄 지원 정책과 관련 인프라(요양시설 등)를 확인해보고, 전주시의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도입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IV 기대 효과

- 우리시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과 함께 치매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수 증가는 치매관리 비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런 출장을 통해 여러 나라의 치매정책 대응 동향을 파악하고, 전주시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맞춰 노인요양, 건강보장, 치매 정책 등 노인 건강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 등 유럽의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시가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치매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
- 특히, 치매안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주형 치매전담형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현재 평화동, 진북동 2개소 마을 지정하였으며, 향후 추가 지정할 계획) 독일과 체코의 치매환자들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들을 견학하며 전주형 치매전담형 마을 조성에 적합한 모델을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
- 또, 전주시는 통합돌봄사업 시범도시로 지정돼 선도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시범사업 종료로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맞는 노인돌봄사업을 발굴하고 안착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보다 앞서 노인돌봄을 시행해온 유럽(독일,체코)의 우수사례를 조사와 학습을 통해 이들 나라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돌봄 복지 서비스의 다양한 정책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

- 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난 2차례의 돌봄 복지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당시 세미나에 참여한 독일 디아코니아 재단의 초청을 받아 이번 국외출장 일정 중 하나로 독일 현지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시설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함으로써, 앞으로도 전주시와 독일 디아코니아 재단과의 지속적인 돌봄 정책에 대한 교류의 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 학술세미나를 공동개최했던 한일장신대학교에서는 매년 독일 디아코니아에 대학생을 파견하여 독일 복지정책을 몸소 체험하고 습득하여 복지정책의 이해를 높이도록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 7월에 디아코니아 현지에서 한일장신대와 디아코니아 간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전주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향후에 독일 디아코니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약식을 체결할 계획
- 사전에 충분한 자료 및 사례를 조사하고 학습하여 실제 출장 중에는 일선 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일정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돌봄 복지사업에 대한 고민과 함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이번 국외출장의 주제인 아동,장애인,노인 돌봄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생활폐기물 활용사례를 조사하고 견학하여 출장 중에 우리시 현안과 관련된 많은 사례와 현장을 보고 학습하는 기회로 활용
- 또한, 이번 공무국외출장단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비롯한 치매안심과, 아동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서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 돌봄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사회복지사까지 함께 구성되어, 민·관·의회가 함께 동행하며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학습함으로써 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담당공무원과, 의원, 사회복지사로서의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임

## V 국가 소개

### 1) 독일



- 수도 : 베를린
- 면적 : 35만7천km<sup>2</sup>
- 인구 : 약 80,722천명(세계19위)
- 출산율 : 1.57명(2022년 기준)
  - ※ 중위연령이 47.1세로 세계2위 수준(저출산 고령화 국가)
- 행정구역 : 연방제(16개주- 주 10, 자유주 3, 도시주 3)

- 국가GDP : 4조 2,565억\$(세계4위) / 1인GDP : 51,104\$(세계19위)
- 기 후 : 독일은 전반적으로 서유럽의 해양성기후로 높은 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온화하나, 북서부와 남동부는 대륙성 기후를 보여 강수량도 적고 서부보다 기온이 낮음. 이러한 혼합형 기후로 연중 기온차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가장 더운 7월에는 남부지역이 북부보다 기온이 높고, 가장 추운 1월에는 서부가 동부보다 기온이 높다. 독일 평균기온은 3.3~19.8° C, 강수량은 30~125mm 정도. 전반적으로 2~4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며 지역적으로는 서부·남부가 강수량이 많고 남부의 알프스 산지는 1,4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함

## 2) 체코



- 수 도 : 프라하
- 면 적 : 78,866km<sup>2</sup> (한반도의 0.357배)
- 인 구 : 약 10,492천명(세계89위)
- 출 산 율 : 1.49명(2022년 기준)
- 행정구역 : 프라하 특별시, 13개주

- 국가GDP : 3,304억\$(세계47위) / 1인GDP 31,368\$(세계35위)
- 기 후 : 대부분 대서양 기후대에 놓여있어,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과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날씨임. 내륙 국가의 지리적 특징으로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상당히 크며, 고도에 따른 온도차도 심한데 가장 높은 산인 스네슈카(Sněžka, 1603m)의 경우 평균온도가 섭씨  $-0.4^{\circ}\text{C}$ 도인데 비해 남부 모라비아 저지대의 경우 평균온도가  $10^{\circ}\text{C}$ 에 이른다. 연중 온도변화는  $-3^{\circ}\text{C}$ 에서  $25^{\circ}\text{C}$  사이이며, 드물지만  $-12^{\circ}\text{C}$  이하로 떨어지거나 영상  $31^{\circ}\text{C}$  이상의 온도를 보이기도 하고, 강수량은 연간 400~500mm로 많지는 않지만, 겨울의 강설 그리고 늦봄에서 초여름까지의 강수가 집중되어 있음

# VI

## 출 장 일 정

일차	방문지역	주요 일정	벤치마킹 사항
1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공항 → 프랑크푸르트</li> </ul>	
2일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크푸르트 고아원재단 (STIFUNG WAISENHAU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크푸르트 아동, 청소년 돌봄서비스 및 자립지원 사업 확인</li> </ul>
3일	하이델베르크 슈트트가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를스루에 공원, 식물원 Karlsruh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를스루에시 도심 녹지공간(공원, 정원) 조성 및 관리사례 확인</li> </ul>
4일	슈트트가르트 뮌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사회복지기관 (Diakonisches Werk Württember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가호,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정책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종사자 및 기관 대표와 간담회</li> <li>- 디아코니아의 복지정책 이해 및 우리시 적용 및 활용사례 발굴</li> </ul> </li> </ul>
5일	뮌헨 프라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라하 노인요양원 (Domov pro seniory Chodov)</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라하시의 치매(알츠하이머)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li> </ul>
6일	프라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라스틱 재활용 기관 (Plastigeam Industri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플라스틱 재활용산업 생태계 확인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 및 활성화 방안</li> </ul>
7일	프라하 뉘른베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뉘른베르크성, 공원 (Bürgermeistergarten)</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뉘른베르크 도심 내 정원녹지 관리사례 관광지 내 녹지공간 활용방안</li> </ul>
8일	뉘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크푸르트시청, 광장 (Römerberg)</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뉘른베르크 → 프랑크푸르트 공항</li> </ul>
9일	인천 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랑크푸르트 → 인천</li> </ul>	